

투데이 칼럼

서해 수호의 날을 기억하며

오는 3월 24일 금요일은 제 2회 서해수호의 날이다.

천안함 피격,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서해 수호를 위해 희생한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리고, 6·25 전쟁 이후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북한의 도발을 상기고 튼튼한 안보가 국가 발전의 토대라는 국가 안위의 소중함을 다져 국민의 안보의식을 결집하여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2016년에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지난 19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이 서해에서 발생했다. 어선 보호를 공격해 북한 경비정이 8일에 걸쳐 NL 침범을 반복했고, 북한군의 기관포를 이용한 선제공격으로 우리 군에서도 반격 차원에서 대응공격을 실시했고 북한군을 격퇴한 뒤 교전이 종료됐다.

2002년 6월 29일에 발생한 제2연

평해전은 북한의 NL 침범과 일방적인 도발로 인해 벌어진 사건으로, 우리 군의 대응 사격으로 북한 경비정은 퇴각하였지만 6명의 전사자를 발생시킨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로부터 7년 뒤인 2009년 11월 10일 대청해전에서는 제2연평해전 당시 바뀐 교전규칙을 적용하여 큰 피해 없이 북한군을 격퇴할 수 있었지만, 2010년 3월 26일 발생했던 천안함 피격 사건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슬픔을 안겨 주었다. 서



남경영

전북서부보훈지청 보상과

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해군 2함대 소속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한 강력한 수중 폭발로 인하여 침몰되어 4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같은 해 11월 29일에는 북한의 연평도에 기습적인 무차별 포격을 도발한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6·25 이후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발포한 최초의 포격도발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서해도발 사건들을

통해 많은 청춘들을 잃고 맞았다. 우리 모두 튼튼한 국가 안보가 국가 발전의 기본 토대라는 것을 상기고, 이들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서해수호의 날"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최근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유엔안보리와 각 국의 대북제재가 실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북한 무력도발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서해수호의 날은 서해 5도에서 일어났던 북한의 기습 도발을 기억하고 국민을 위해 목숨 바친 영웅들을 추모하면서, 국민의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을 튼튼히 지키고 발전시켜 지금의 안보위기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독자제언

신학기 초, 학교폭력예방에 많은 관심을 갖자

신학기 초, 3-4월은 많은 학생들이 모여 힘겨루기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학교폭력이 집중되는 시기이다.

또한, 친구들은 전부 서로의 성향을 잘 알지도 못하니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높고 학교폭력사태의 경우 통계적으로도 신학기는 학교폭력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학기초는 새로운 환경에서 오는 긴장감이 많다. 그래서 학교선생님은 물론 학부모들이 더욱 신경이 썩어야 하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할 수 있다.

학부모들은 학기 초, 자녀들이 학교 가기를 싫어하거나 갑작스런 전학을 요구하고 과도한 용돈을 요구하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담임선생님과 상담 등을 통해 학교폭력예방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야겠다.

학교폭력의 예방이 중요할 만큼 가족을 포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처지 혹은 괴롭힘을 당하는 동료 가 있다면 그 친구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으로 알려 도움을 받도록 하고 반대로 가벼운 마음에 장난으로 한 행동이 결국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언제나 상호존중이라는 마음을 잊지않고 생활해 나가야 한다. 경찰은 학교폭력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성을 오래전부터 인식하여 2012년부터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운영하여 청소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대면신고를 어려워하는 점을 생각하여 117전화신고, #117문자메시지 전송, 다양한 앱 등 여러경로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비대면 신고 및 상담을 하고 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이라는 선택으로 시작하는 신학기, 올해에는 학교폭력을 만나지 않길 바라며 학생들이 혼자 아파하는 일이 없고 웃음으로 가득한 학교생활을 만들어가길 기대해 본다.

박경안 순창경찰서 북흥파출소 경위

독자제언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노력하자

갈수록 증가하는 자동차 수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불편 및 교통 혼란이 파생되고 있어 시민의식 개선이 시급하다.

불법 주·정차는 교통체증은 물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한다.

이는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에 주차·정차를 하는 것보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어진 것이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운전자를 때문에 도로가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특히, 갓길이나 좁은 골목길에 불법으로 주·정차 된 차는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시야를 막는 등

안전 사각지대를 만든다. 그로 인해 운전자가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보행자나 오토바이, 자전거 운전자 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이라는 시내버스에 부착된 폐쇄회로(CC) TV를 활용,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이보다 단속 전에 운전자 모두가 주·정차 시 자발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위치가 아닌지 꼼꼼히 살펴보고 주·정차 금지구역은 피한다면 철저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양심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을 당부한다.

김윤철 지방경찰청 경찰관리과대 순경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사설

국책 사업들 힘찬 추진 보여야

도내 국책사업에 대하여 생각이 많다. 원활한 추진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따라서 지금의 이 시점에서 그 국책사업들의 현황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국책사업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을 뿐,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새만금 사업이다.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 견인하는 모습이 미미하다.

국책사업들이 지역 경제를 이끌 어줘야 하는데 그게 계속해서 희망 사항일뿐이라서 답답하다. 국책 사업이라면 지역을 일으켜주는 시너지라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런 세월이 한두 해도 아니고 수십년이니 유감이다. 그래서 여기 말 할 게 있다. 새만금 사업 예산 증액이 되나비나한 미미한 수준이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불가 인상을 생각할 때 그것은 실제로 마이너스 예산 집행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이 지역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는 정부를 상대로 국책사업의 성격을 확실히 짚어줘야 한

다. 이레가지고는 국책사업이 향토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다시말하자니 지역의 문제는 국책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그래서 전북도 관계자들의 추진력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책사업이 됐으면 힘을 실어서 계속 밀어붙여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것이다. 그런 세월이 오래이기에 전북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낙후돼 있다. 전북도 관계자들은 이런 지적에 통증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국책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 사업의 당위성 같은 것에 공감대를 얻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는 각각의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확실히 받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북도가 지난해 예산 증액을 위해서 동분서주했다지만 손에 쥐어진 액수는 마땅치 않은 것이었다. 사실을 말하자면 4년째 허덕거리면서 턱걸이가 안 되고 있는 예산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전북도가 국책 사업들의 힘찬 추진을 위해 올해는 실력 발휘를 해야겠다.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 수립 시급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를 고민해야겠다. 이 무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역의 앞날이 어둡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가 지역 사회를 버팀목으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드 크로스 현상의 고착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이다. 도내 인구 감소가 전국 최고라는 보도가 여러 번 있었거니와 도내 생산 가능 인구가 하릴 없이 줄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해 도내 인구의 감소는 수십년 만의 기록이었다. 그 보도된 내용을 잊지 말아야겠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 무슨 대책이고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서울의 인구 감소세가 전국 최고라지만 이쪽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전세값 상승 때문에 주변이 가까운 도시로 이사를 가고 있기에 그렇다. 도내 인구 감소 문제를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농촌치러려고 해선 안 된다.

전북도는 올해 신경써야 할 것이 하나 뿐이 아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아이 낳기 좋은 사회 만들기 운동이라도 벌어져야겠다. 정부가 발인출산 장려가 약발이 다한 지금이

다. 전북도는 보다 차원 높은 출산 장려책을 내놓아야겠다. 출산 휴가라든가 육아 휴가라든가 그런 배려 문화가 자연스럽게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직장의 눈치를 보아가지고 전전긍긍하느라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 임신부가 힘들어하도록 내버려두면서 출산 장려를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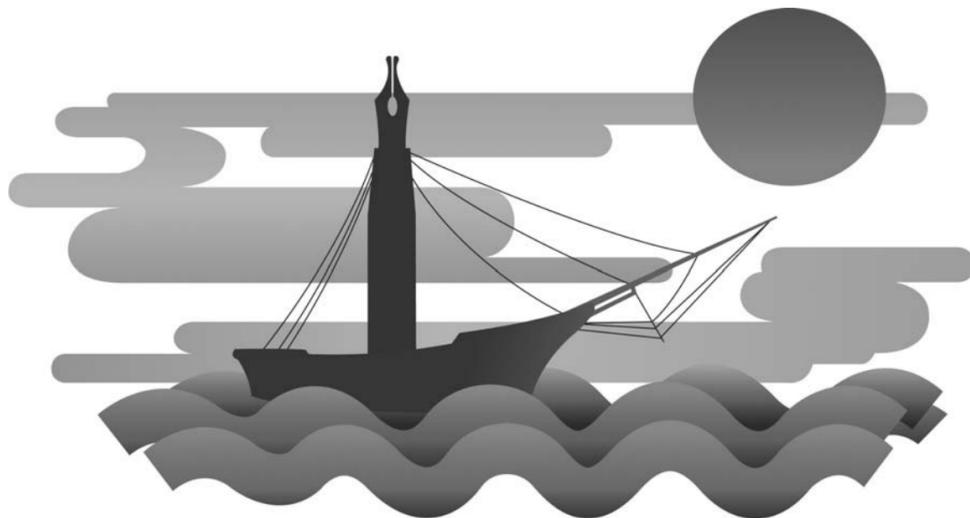
전북도가 먼저 잘 알고 있으려니와 도내의 거주 인구는 186만5천 명이 조금 넘고 있는 수준이다. 전북도는 거주 인구의 현실과 관련해서도 무슨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도내 출산 인구가 늘고 있는 중에 고령화로 하향 고착화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오래 됐는데 뾰족한 대책 마련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특히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40%를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믿겨지지 않는 사실이다. 젊은이들은 줄고 있는데 늙은이들만 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전북도와 지역사회가 함께 이마를 짚고서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